홍정표 사진전

Hong Jeong Pyo Photo Exhibition
The story of Soon-duk's family

순덕이네 가족사

2018. 10. 19. fri ~ 11. 30. fri

Opening 2018 10. 19. fri 16:00pm.

산지천갤러리 제주시 중앙로3길 36 (064)725-1208 11:00 ~ 19:00

주최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제주 MBC

주관 산지천갤러리 제주대학교박물관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 차

Contents

06 인사말 | Chairman Greetings |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10 서 문 | Introduction | **서재철** 제주사랑갤러리관장

15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

89 만농 홍정표 선생

104 만농 홍정표 선생 연혁

인사말

산지천, 육지와 제주 섬을 잇던 곳

"순덱아, 어디 감시니?"(순덕아, 어디 가니?)
마을 어귀 큰 팽낭 그늘에 앉아계신 동네삼춘들을 만나면 건네주시는 일상의 인사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는지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줄 알고 쩔쩔 매기도 했습니다. 흔한 인사말인 것을 안 것은 동네삼춘들과 많이 친해지고부터입니다. 어떤 때는 동네 삼춘이 집 마당에 불쑥 들어오셔서 "뭐 햄서?"(뭐 하니?) 묻습니다.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경(그렇게) 허지 말앙 영(이렇게) 해살 거여." 하시면서 훈수를 두십니다. 이런 일상 소통이 결국 그 마을에 나를 끼워 넣어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마을에서의 공동체적인 소통은 닫힌 문과 방 안의 생활에 익숙한 지금의 생활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동네의 가까운 옛 모습으로만 남아 있기만 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순덕이의 가족 이야기'
산지천갤러리는 제주 사람이 척박한 자연을 개척하며 공동체 삶을 살던 시절의 제주 옛 모습을 사진으로 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제주의 일상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만농 홍정표 선생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 전시의 제목을 '순덕이의 가족이야기'라고 붙여서, 한 집안의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 옛 모습을 엮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 모니터 안의 세상만 보는 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수눌어져서'(함께 일하면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던 제주의 모습을 불러내어 지금과 미래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았으면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제주를 살아온 평범한 삼춘들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만농 홍정표 선생의 1950년대 사진 작품 덕입니다. 또한 이 사진들이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의 작품을 기증해주신 유족분께, 영구 보관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제공해준 제주대학교 박물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농 홍정표 선생(1907~1991)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천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우리말과 향토애를 가르치며 교육의 한길을 걸어온 분이십니다. 선생은 1950년대에 제주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토속문화를 실측 촬영하는 (사진)작업"을 하셨고, 1964년에 서울에서 사진전시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홍정표 선생은 교육자이시면서 제주의 사진, 문학, 미술, 서예, 민속 보존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예술인, 민속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농 홍정표 선생의 1950년대 '제주 사람들의 삶'의 사진 중 50점은 세계적 사진박물관이라 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진국에 영구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증을 요청한 프랑스 사진국의 큐레이터는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홍정표 선생의 사진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 가난한 농부들의 삶을 자세하고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예술성에 의해서 땅과 노동과 일상에 밀접해 있는 우리 자신을 느낍니다. 최상의 경의를 표합니다."

'순덕이의 가족 이야기'는 산지천갤러리가 제주 사진가 또는 제주 출신의 사진사적 성취를 이룬 작고 작가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전문 공간으로 기획한 세 번째 전시입니다. 만농 홍정표 선생의 1950년대 제주 일상 삶을 함께 보며, 지금의 제주 그리고 미래의 제주를 이야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덱이네가 이추룩 살아왔댄 마씀. 봅데강? 왕 봅서, 우리 이야기우다."

(제주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와서 보십시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 경 대**

Greetings

"Soon-duk, where are you going now?"
It is typical greeting words from the seniors who usually sit under the shade of a big tree in the village. For the first time, I had no idea how I reacted and thought that I needed to explain where I was going exactly. After getting used to their way of communication, I realised that it was a common greeting word. Sometines, one of the senior suddenly came inside my garden and asked me what I was doing. When I explain what I was doing at the moment, they usually gave me some tips to do it better. I finally realised that this communication was the process of accepting m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Communication on the village level may not be understood to the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living in the closed and individual space. I think that it might be dealt with the old fashioned way of communication.

〈The story of 'Soon-Duk's Family〉
Sanjicheon gallery will show photographs of old days in Jeju when Jeju people lived a communal life in order to overcome the barren nature. The exhibition shows the works of Hong Jeong-Pyo, a photographer who recorded Jeju's ordinary life in the 1950s. 〈The story of 'Soon-Deok's Family〉 Shed new light on Jeju people's life in the form of a family story. We would like to invite the people especially who are familiar with watching the world through the individual screen placed on their palm. We expect that the exhibition shows the memories and values of Jeju community which lived and worked together.

First, there is something to say. Thanks to Man-Nong Hong Jeong-Pyo and his photographs, we are able to see the ordinary life of Jeju people in the 1950s.

It is possible to open the exhibition as the photographs were donated to the Museu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well preserved.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Hong Jeong-Pyo's family who donated his priceless works and the Museu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o arrange the works to be exhibited.

Man-Nong Hong Jeong-Pyo (1907-1991) taught Korean and the value of local culture and history as a teacher at Jocheon public high school in 1926 when Japan empire ruled Korea. He walked all over the Jeju island in the 1950s and took pictures to document the Jeju local culture. In 1964, he held a photograph exhibition in Seoul and attracted nationwide attention. Hong Jeong-pyo was not only an educator but also a local culture researcher who contributed to the Jeju literature, art, calligraphy, and conservation of folklore. In addition, fifty pieces of his photographs of 'Jeju people's life in 1950s' were permanently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Photography department, which is called the museum of World Photographs. The curator of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who requested the donation at the time,

"The photographs of Hong Jeong-Pyo are beautiful. … The photographs shows the lives of poor farmers in detail and impressively. Through his art, we feel ourselves close to earth, labor, and everyday life. I express my highest respect."

〈The story of 'Soon-Deok's Family〉 is the third exhibition of the Sanjicheon Gallery as the first public gallery in Jeju devoted solely to photography. The gallery exhibits the works of Jeju photographers who are accomplished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I would like to have a look together the life of Jeju people in the 1950s through photographs of Man-Nong Hong Jeong-pyo. It would be such a good chance to share about Jeju now and the future.

"Jeju people lived like this, did you see that? Please come and see. It is definitely based on our story, indeed."

President, Jeju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h, Kyung-Dae

서 문

만농 홍정표 (晩農 洪貞杓) 선생 사진을 생각하며

만농 홍정표(晩農 洪貞杓) 선생은 평생을 후학들을 위해 교단에 서셨고,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 살아 오셨던 교육자이다. 교육자이면서도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서예가로 소암 현중화(素岩 玄中和), 청탄 김광추(淸灘 金光秋) 선생과 함께 제주도 서예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기도 했다. 교육자나 서예가임은 당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홍정표 선생은 사진가로 더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안다.

홍정표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 기록한 제주의 옛 생활, 민속사진들은 사후 유족들이 필름을 제주대학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공개되어 제주에 옛 사진들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또한 이 사진들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3사건이 수습되는 50년대 후반부터 다시 시작된 사진 활동 무렵 제주인으로는 처음으로 1964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문화공보관 에서 '제주 민속사진전'을 열었다. 당시 제주 민속사진이란 희귀성도 있었지만, 4·3사건과 6·25전쟁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기록사진전을 개최했다는 점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전시가 열리는 서울 문화공보관에는 하루 관람객이 1만 명이라는 사진전 사상 유래 없는 관객들 몰려 관심을 끌었다. 이 전시는 서울에 이어 수원 초청전과 제주시 칠성로에 있는 무지개다방에서 전시됐을 만큼 화제가 됐었다.

홍정표 선생은 어떻게 제주인의 삶을 기록하게 됐던 것일까?

사진가도 아니었고, 당시 사진을 찍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왜 사진을 찍었을까?

이유가 있었다. 홍정표 선생은 교육자이면서 제주 민속에 관심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 돌아 왔다. 이때 육지부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제주 고유의 풍속과 양속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1951년부터 제주 전통 민속 · 풍속을 기록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그에게 카메라를 들게 했다. 당시 제주도 사정은 사진을 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제주 민속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필름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현상, 인화하는 시설이 형편없었던 시절, 이런 모습을 찍으려는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할 때였다. 물론 홍정표 선생은 민속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제주의 전통이 사라져 가는 것에 가슴아파했고, 그래서 더 이상 변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기록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이 지금의 사진들을 남긴 것이다.

홍정표 선생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순수기록사진이다. 길거리에 방치해 있는 돌하르방, 농사일 하는 도민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부들 모습, 장례식 모습, 해녀들이 물질 나가는 모습 등 꾸밈새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다. 사진의 기교나 예술미를 중시한 그런 사진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순수한 모습이었기에 더욱 그 기록성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사진을 하는 후학으로 홍정표 선생의 사진정신을 꼭 본받아야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 사진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展 역시 옛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진득하게 담겨진 사진들을 통해 홍정표 선생의 기록정신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자연사랑갤러리관장 **서 재 철**

Thinking about the photographs of Man-Nong Hong Jeong-Pyo

Man-Nong Hong Jeong-Pyo was an educator who contributed to Jeju's educational development throughout his life. He made a lot of efforts to develop calligraphy of Jeju Island together with So-Am Hyun Joong-Hwa and Cheong-Tan Kim Gwang-Choo. He was well known as an educator and calligrapher, but not many people know that he was more famous for his photographs.

The Photographs of the old life and folk of Jeju recorded by Hong Jeong-Pyo were released after his family donated the films to the Museu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fter his death. The photographs were amazed and precious because they described the Jeju people's life in the past.

From the late 1950's when the Jeju massacre was over, he started taking pictures again. For the first time as a Jeju person, he held an 'Jeju Folk Photography Exhibition' from 21 May to 27 May 1964 at the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It was rare for Jeju's folklore to be exhibited, and even more meaningful because it was an exhibition just after the end of the Jeju massacre and the Korean War. The exhibition was attracted 10,000 visitors a day which was unprecedented. This exhibition was held in Suwon, followed by the exhibition in Seoul, and it became a hot issue to be exhibited in the Moo-Ji-Gae (rainbow) coffee shop located in Chilsungro Road, Jeju City.

Why did he photograph the life of the Jeju people even though he was not a There was a reason. He was an educator and interested in Jeju folklore. When he worked as a teacher in Seoul, the Korean War broke out.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of Jeju. At the same time, many refugees from mainland moved to Jeju. For the reason, the communal values and customs of Jeju were

disappeared. He felt strong responsibility to keep the memory of the Jeju traditional folk customs. Since 1951, he started taking pictures to do it. It was hard to find a film, the facility to develop and print a photograph was even worse. Hong Jeong-pyo identified himself as also a folklorist, so his heart was sickened by the disappearance of Jeju's tradition.

The works of Hong Jeong-Pyo are documentary photographs. The phographs show the life of Jeju people, which is very natural, such as a Dol hareubang (Jeju typical large rock statue) in the street, farmers, fishermen working at the sea, funeral ceremony, and Haenyeo (female divers working in the sea). His photographs are regarded as a documentation because they have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from those of the photographs that emphasized the techniques and aesthetics. I think that I should follow the spirit of Hong Jeong-Pyo a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photography industry now. Especially in times of rapid change, these photographs will have more important value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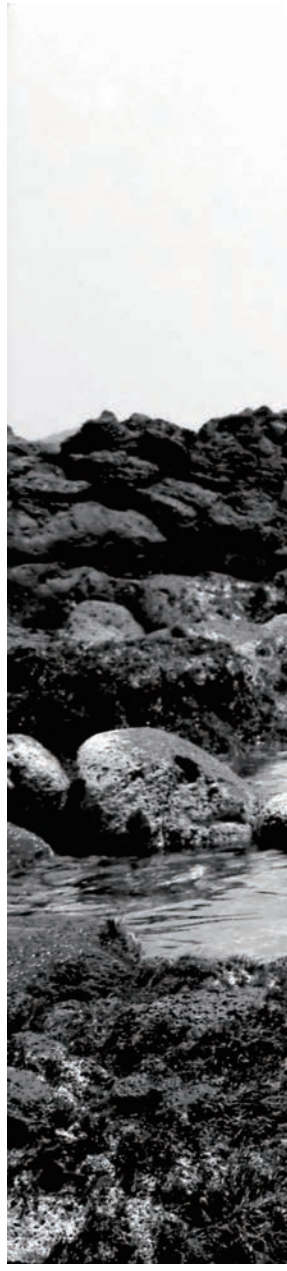
In this exhibition 〈The story of Soon-deok's family〉, you can see the willingness to record and authenticity of Hong Jeong-pyo through his photographs of the Jeju people's life in the past.

Director of the Photo gallery Image of Nature Seo Jae-Cheol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

순덕이네 가족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순덕이에요. 사진 속에 야무진 소녀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게 저랍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오빠, 남동생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께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의 생활모습을 통해 들려 드릴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마 저나, 저희 가족과 비슷한 모습이셨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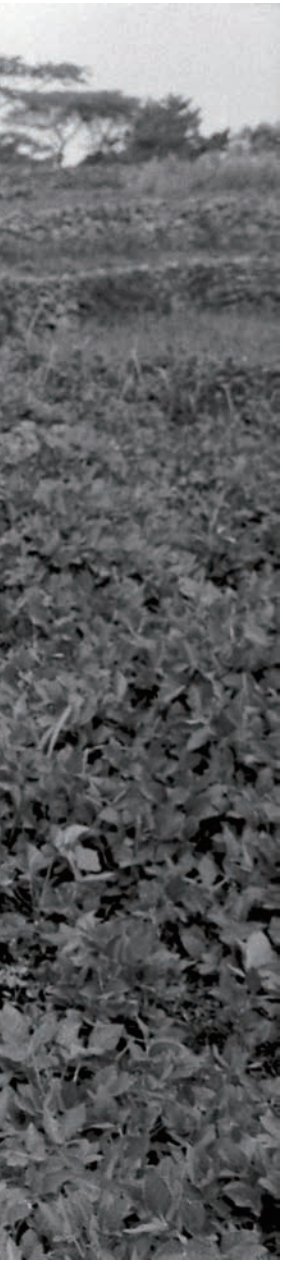


새벽 수산시장 풍경

이른 아침, 고깃배가 들어오는 포구에는 수산시장이 형성돼요. 오늘도 '앞돈지'에 새벽 수산시장이 섰나 봐요. 싱싱한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과 갓 들어온 고깃배로 북적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랑 삼촌도 어젯밤에 고기잡이를 가셨는데 생선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버지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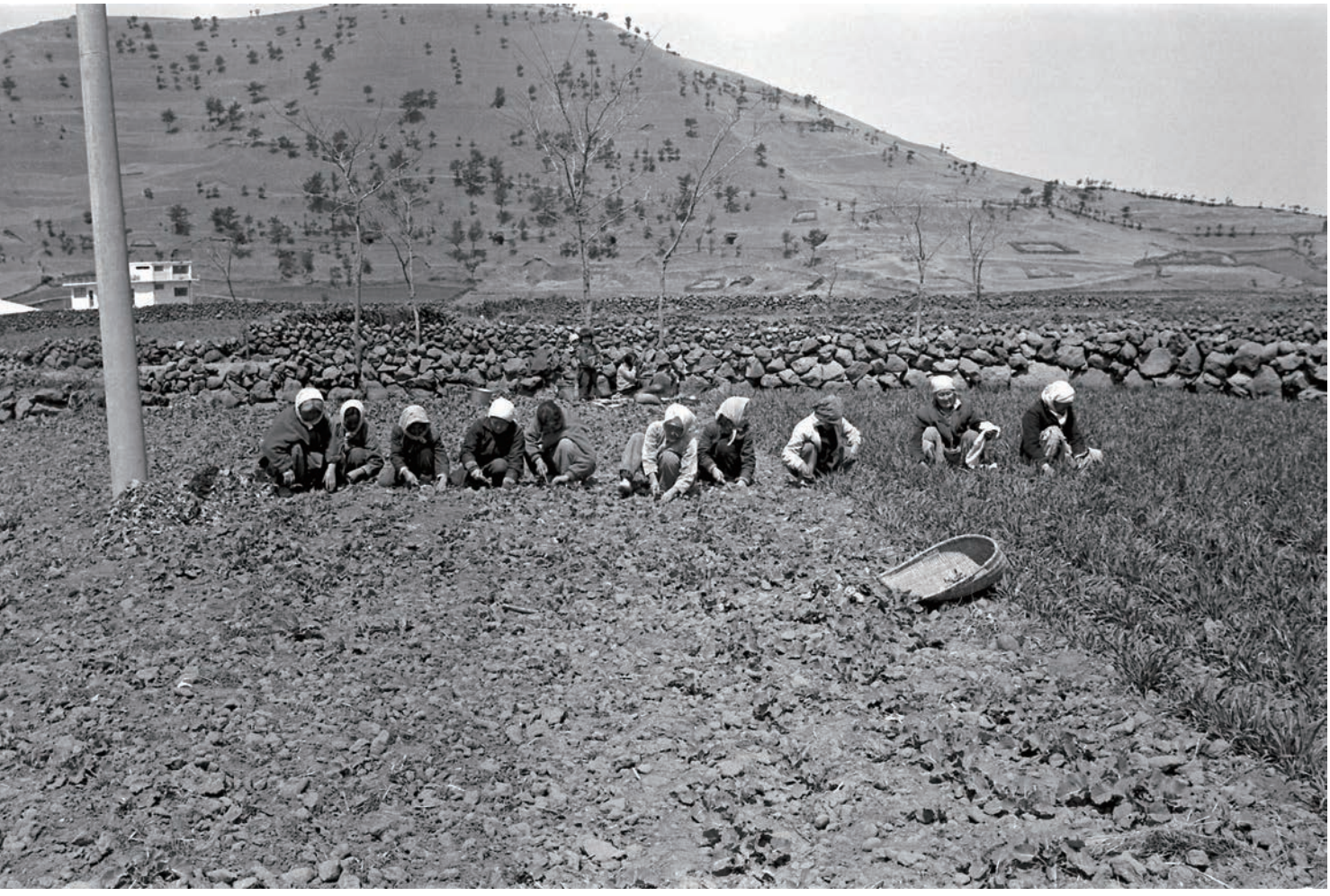
생활 공예품 만들기

저희 할아버지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만드신답니다. 우선 덩드렁마께로 짚을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후에 짚신도 삼고, 곡식을 넣어 나르는 멩텡이랑, 흙이나 거름을 나르는 골체도 만들어요. 짚뿐만 아니라 새나 칡, 댕댕이덩굴 등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서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만든답니다. 대나무로는 구덕이나 차롱, 삿갓을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통풍이 잘되어 아주 실용적이지요.



그늘캐와 김매기

농사일이 바쁜 계절, 집에 갓난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아기를 밭에 데리고 가서 나무를 세워 놓고 천을 둘러 '그늘케'를 만들어 아기구덕에 뉘어 놓고 농사일을 했어요. 그리고 보리밭은 2~3회 정도 김매기를 했는데 그때는 여럿이 모여 수눌음으로 작업을 해서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었답니다. 수눌음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김매기를 하고, 밭일을 도와주는 협동 과정으로 '수눌어 일한다'고 해요. 오늘은 저도 아기를 업고 어머니랑 할머니와 같이 밭에 왔어요. 점심은 대구덕에 담아 지고 온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점심은 정말 꿀맛이에요.



어머니의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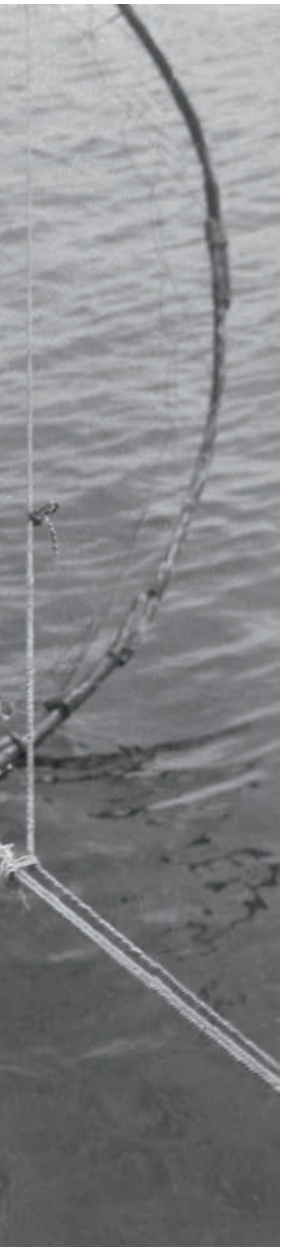
3월쯤이면 미역을 딸 수 있는 해체기가 돼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랑, 온 가족이 동원되어 미역을 따고 나르는 작업을 하지요. 해체기가 되자 미역을 따기 위해 마을 해녀들이 물에 들고 있어요. 저기, 우리 엄마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물질을 하세요. 특히, 추운 겨울에 하는 물질은 정말 힘들어요. 오늘은 소라랑 전복을 많이 땄는지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나오시네요. 가끔은 작살로 커다란 생선을 잡기도 한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밭갈기와 밭밟기

오빠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종종 도와 드려요. 오늘은 소에 쟁기를 매어 밭을 갈고 있어요. 저도 오빠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쩐지 오빠의 모습이 든든해 보이네요. 밭을 갈고 나서 파종을 하면 어머니는 '섬비'(끄슬케)를 만들어 섬비질을 해요. 파종한 씨앗 위로 흙을 덮어 주어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섬비질은 아주 고된 노동이에요. 엄마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네요. 오늘 저녁에는 안마를 해드려야겠어요. 조를 파종하고 난 후에도 씨가 날아가지 않게 땅을 단단하게 밟아 주어야 해요. 이때는 테우리들이 말들을 밭으로 몰아 밟게 해 주거나, '돌테'나 '남테'를 말에 매어 밭을 밟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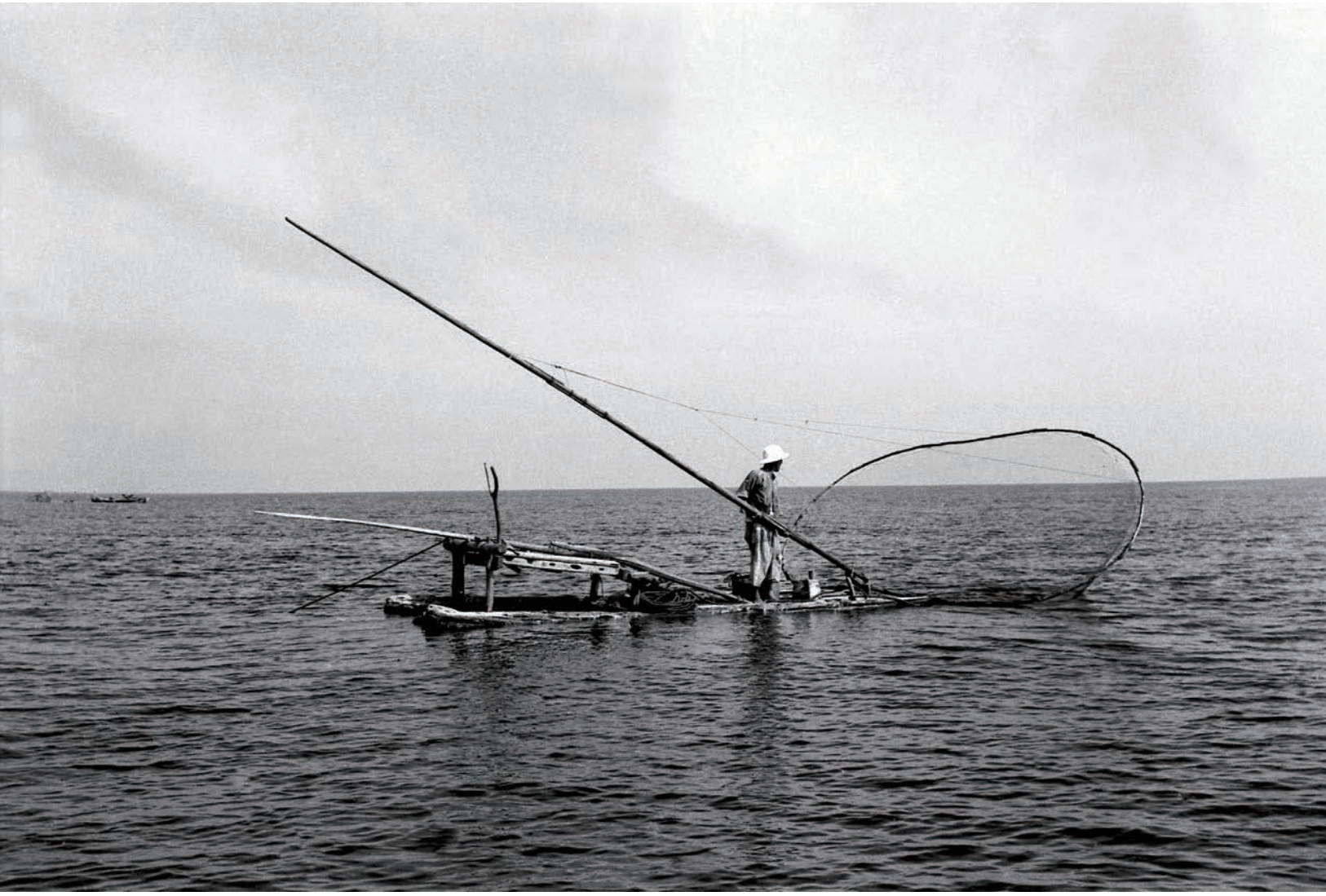
즐거운 점심 식사

커다란 밥도고리에 밥을 뜨고 식구들이 둘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어요. 국그릇은 각자지만 밥은 함께 먹는답니다. 대구덕에 담긴 채소와 젓갈 등 몇 안 되는 반찬이지만 도란도란 둘러 앉아 먹는 점심은 꿀맛이에요.



테우와 그물 손질

할아버지가 테우를 타고 자리를 잡으러 가셨어요. 테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거나 낚시, 해초 채취를 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랍니다. 테우에 달려 있는 그물인 '사둘'을 이용해 자리를 잡는데 '자리 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리는 주로 4월경부터 9월까지 잡히는데 젓갈이나 횟감, 미끼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다음 고기잡이에 사용할 그물이랑, 어구들을 손보고 있어요.



한낮의 목장과 염소 치는 아이

제주도는 마을마다 마을 공동 목장이 있어서 그 곳에 소와 말들을 풀어 놓고 키워요. 이때 집집마다 돌아가며 마소를 돌보거나 테우리들이 돌보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차례인가 봐요. 그런데 심심하신지 친구분과 '고누'를 두고 계시네요. 염소 치는 일은 오빠의 몫이에요. 저런, 오빠가 또 염소싸움을 붙였네요. 염소들은 사이좋게 풀을 뜯다가도 옆에서 '세다' '붙으라!' '지크냐?' 라고 부추기면 곧잘 싸우기도 한답니다. 염소끼리 싸움 붙여 놓고 웃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조금은 얄밉네요.

탈곡하기

무르익은 곡식을 거둔 후 가족이 모여 도리깨질을 했습니다. 도리깨로 타작하여 낟알을 떨어내는 일을 '마당질' 이라 합니다. 무더운 낮에 도리깨질을 계속 하다보면 무척이나 힘이 들지만 흥을 돋우기 위해 삼촌, 할머니, 오빠는 노동요를 부르며 마당질을 했답니다. 보리농사 후에는 탈곡기를 돌려가며 서로 일을 분담해 보리타작을 합니다.

도정하기

할머니와 어머니는 잘 말려둔 콩, 메밀, 보리들을 연자매, 남방애로 곡물의 껍질을 벗겨 내는 일을 종종 합니다.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며 돌려주거나 물에 담갔다가 찧어야 껍질이 잘 벗겨진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작업을 '능그기'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능그기한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떡이나 두부를 장만하려고 할머니와 정가레를 힘을 맞춰 돌렸습니다.

집줄놓기

늦가을이 되면 가족 단합대회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집줄놓기'를 하는 일입니다. 바람이 강하고 습한 날씨 때문에 새(띠)를 베어다가 지붕을 덮고 또한 엮어 줄을 만듭니다. 완성이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지 않도록 집줄을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단단히 얽어 묶습니다. 두 사람씩 호흡을 맞춰 줄을 엮는데 이웃끼리 서로 수눌음을 하며 도와주기도 합니다.

탕건, 갓양태 겯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부업 중 하나로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탕건겯기는 말총을 재료로 탕건골을 틀로 이용해 세심하게 집중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언니 동생이 모두 모여 만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갓양태, 탕건, 망건 겯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갓양태에는 오랜 세월 숙련된 솜씨가 녹아있습니다.

물 기르기

물이 귀해 용천수나 우물까지 나가 식수를 해결합니다. 틈틈이 허벅이나 대바지에 물을 길러 물구덕에 담고 등 짐 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루 중에 중요한 일과입니다. 머리에 이고 걷기보다는 어머니가 음식을 담고 옆집 마실 갈 때, 물건을 들고 다닐 때, 대부분 구덕에 담아 옆으로 이거나 등 짐 지고 다녔습니다. 물을 기르고 옆집 친구와 걸어 올 때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일손 돕기

남동생도 나름 일손을 돕느라 바쁩니다. 할머니와 소먹이 촐(꼴)을 등 짐 지어 나르는 일도 어린나이 임에도 일찍부터 배워 날랐고, 조 이삭 다듬는 일도 제법 도맡아 합니다. 막내 아기를 업고 소 지킴이 또한 동생 몫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동네 친구들과 얕은 바다에 나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잊고 신나게 하루 보내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고소리주 닦기와 할머니의 뜸 치료

이른 저녁이 되도 어머니는 틈틈이 베틀을 짜서 식구들의 옷감을 마련합니다. 제사나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정지에서 소줏고리로 술을 정성스레 만들어 미리 장만합니다. 쉴 틈 없이 하루가 바쁜 어머니의 어깨가 고단합니다. 할머니도 부지런한 탓에 겨울에는 굴묵 떼는 일 담당입니다. 아궁이가 없어 굴묵에서 불을 지펴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마친 저녁 즈음에는 종종 뜸단지를 이용해 뜸을 떠 아픈 곳을 치료하십니다.

만농 홍정표 선생

水岳橋

KOREAN AIR

만농 홍정표 선생 연혁

일제 강점기와 분단시대의 교육자. 향토문화연구가. 사진가.
호는 만농(晩農), 본관은 남양이며 제주시 이도동에서 소농 홍순용(小農 洪淳容)의 차남, 또 서예가 연농 홍종시(硏農 洪鐘時)의 손자로, 1907년 3월 11일 출생 – 1991년 1월 13일 향년 84세에 서거

학 력

1916–1925	제주공립보통학교 (제주북교 전신) 졸업
1922–1925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1925–1926	전남도립사범학교 (광주사범 전신) 강습과 졸업
1941–1941	경성대학교 문화강좌 전 과정 수료
1950–1953	한국대학 (국제대학 전신) 법정학부 정경과 야간부 3년 수료

경 력

1926	조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딛다. 그 뒤 제주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옮김.
1934	당시 교장은 이케다(池田後雄), 6학년 담임인 만농은 어느 학생이 “한국에도 국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태극기를 그려 보이며 “가가호호 태극기가 걸릴 때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성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교장에게 미움을 받게 되자 걸상을 내던지고 제주를 떠나다.
1935	경기도(현. 서울 포함) 마석교(摩石校)로 옮기고 이어 용강교(龍江校) 등에서 재임하고 광복을 맞다.
1946	북성교(北星校) 교장, 이어 강화교, 신공덕교, 강남교 교장을 역임, 강남교는 지금 상도동에 있는 동산 기슭,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이어서 만농의 예심(藝心)을 북돋아주던 좋은 환경이어서 뒷날 그의 취미와 연구에 대한 욕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
1950	마포(麻浦)중학교 교감으로 옮긴 지 반년 만에 한국전쟁으로 1·4 후퇴 때 제주로 귀향
1951	서귀농업중학교 교감으로 새 출발하면서 향토문화를 위해 민속자료 수집과 제주 풍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 7월에 조천중학교 교장에 이어,
1953	제주사범학교 교장
1954	제주농업고등학교 교장
1955	오현고등학교 교장
1957	제주대학 강사
1960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
1967	제주도교육연구원장
1970	제주간호학교 (제주한라대학 전신) 초대 교장

언론 · 문화 활동

1953–1955 제주신문 논설위원
1955–1962 제주미술협회 부회장
1959–1961 제주문학인협회 창립, 회장 취임
1964–1969 제주산악회 창립, 회장 취임
1965–1973 영주연묵회 창립, 초대회장 취임
1966–1982 제주미술관 개관, 관장 취임
1967–1976 제주사진협회 창립
1973–1974 제주도문화유적 조사위원
1981 정년퇴임으로 공직을 떠난 후 문공부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감정관으로 위촉받아 이 일에 몰두하다.
1982 운영난으로 제주미술관이 문을 닫게 되자 오랫동안 애지중지 해오던 많은 소장품 중 일부를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 1992년 미망인 황인옥 여사께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평생 보시던 책, 유물, 사진 필름, 제주학의 육필 원고까지 후학들을 위해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에 기증

수 상

1962. 11 녹조소성훈장 (대통령)
1963. 11 제주도문화상 (제주도지사)
1964. 11 교육공무원연공상 (대통령)
1967. 11 제주도공익상 (제주도지사)
1969. 12 민족문화유산보존공덕감사장 (문화공보부장관)
1985. 11 서울신문 향토문화상 (서울신문사장)

저 서

1963 『濟州島民謠解說』 외 논문 다수
1989 연농(硏農)선생 유묵집 발간

사진전

1964. 5 제주풍물사진 300여 점을 골라 서울, 수원에서 제주인으로서는 최초로 사진 전시회를 갖다.

기 증

1993 선생의 유족이 사진 자료 3천 여점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함.

연보: 만농 홍정표 선생의 행장(行狀)은 김찬흡 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 p.430에 게재되어 있음.

마을 홍정표 사진전
순덕이네 가족처럼

Hong Jeong Pyo Photo Exhibition
The story of Soon-duk's family

2018. 10. 19. fri ~ 11. 30. fri
산지천갤러리 제주시 중앙로3길 38 (064)725-1208 11:00 ~ 19:00

주　　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산지천갤러리
전시총괄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간사업본부장)
전시기획　강은실 (제주대학교박물관), 이경모 · 강영우 · 고은혜 (산지천갤러리)
전시설치　박주애, 임현규
사진편집　이디아트
디 자 인　디자인이야기
번　　역　강영훈

발 행 일　2018년 10월
발 행 인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발 행 처　제주문화예술재단 산지천갤러리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f used in any for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Sulmundae Woman's Center